

한화석유화학, 대대적 사업구조 재편

석유화학 탈피 태양광 사업 강화 ... 석유화학제품 해외생산 가속화

한화석유화학이 유화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홍기준 한화석화 사장은 “시험가동을 마무리 짓는 2010년 1월부터 울산공장에서 태양전지를 연간 30MW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2012년 330MW, 2015년 1GW까지 확대해 세계시장의 5%를 점유함으로써 글로벌 10위 안에 진입하고,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석유화학 울산 2공장의 1500㎡ 부지에 건설한 태양전지 공장은 2009년 상반기 미국 Spire로부터 기술과 장비 등을 일괄 도입해 7월부터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

결정질 실리콘(Silicone)형 태양전지를 생산하며, 국내외 모듈기업의 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상업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30MW는 1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홍기준 사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태양광 산업의 과열양상이 진정되면서 거품 효과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각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2012년 이후부터 태양광 관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5년 경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화석유화학은 2015년까지 폴리실리콘(Polysilicone)에서 태양전지에 이르기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태양광 발전소 설비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외 태양광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기준 사장은 “태양광 셀(Cell) 분야는 반도체나 LCD(Liquid Crystal Display) 기반기술이 모여있는 한국, 중국, 타이완 등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내시장보다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립 50주년을 맞는 2015년에는 매출 9조원과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목표로 2009년 초 <글로벌 케미컬 리더 2015> 비전을 선포했다”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7월 중국 Ningbo에 PVC(Polyvinyl Chloride) 30만톤 플랜트를 착공했고, ASR(알칼리수용성수지) 타이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사우디에서 EVA(Ethylene Vinyl Acetate) 2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까지 태양광, 탄소나노튜브, 바이오 의약품, 2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양극재 등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신규사업의 매출비중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6>